

한우

한우인의 날 행사 및 한우협회 창립 기념식 성료



한우인들의 축제인 한우인의 날 행사와 전국한우협회 창립 14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주최하고 울산지회(지회장 김두경)가 주관해 지난 9월 9일 ‘12회 한우인의 날 행사 및 전국한우협회 창립 14주년 기념식’이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우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주제로 전국에서 8천여 명의 한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우인들의 힘든 마음을 달래고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

가 되었다.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한우산업이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도 없었다”라며 “앞으로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도 한우산업종합발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지로 정부와 한우협회, 한우농가들의 힘을 모아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해쳐나가자”라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9. 13

한돈

한돈농가, 3750톤 ‘돼지고기 장기 공급계약’ 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9월 1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료육 수급안정을 위해 한돈농가와 돼지고기 가공기업간의 ‘원료육 장기구매-공급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인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협회가 월 250톤이내의 냉장육 한돈 뒷다리살을 공급하고, 구매자인 CJ제일제당(주)과 롯데푸드(주)가 각각 최대 200톤과 50톤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의 중재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개월간 공급자-구매자 간 자율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거래가격은 1kg당 상한가 3,400원부터 하한가 2,600원까지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매시장 경락가격(박피기준)이 1kg당 5,000원을 초과 시 상한가를 3,500원으로 상향하고, 2,800원 미만으로 하락 시 하한가를 2,500원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산 원료육의 불안정한 가격 변화 때문에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수입육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업계가 수입육을 사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국내산 원료육의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국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돈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9. 12

양계

농협-닭고기·계란자조금 ‘구구데이 페스티벌’ 개최



9월 9일, 구구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선 ‘9월은 닭고기와 계란이 9매 당기는 날’이란 주제로 기념식과 계란, 닭고기 소비촉진 이벤트가 펼쳐졌

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제11회 구구데이 페스티벌’이 열렸다. 농협축산경제(대표 남성우)가 계란자조금(위원장 안영기), 닭고기자조금(위원장 이홍재)과 공동 개최한 구구데이 페스티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과 이준동 양계협회장을 비롯한 정병학 계육협회장, 김연수 토종닭협회장, 오정길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한국양계조합장), 최성천 대충양계조합장, 김태웅 부산축협장 등 양계관련단체장과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농축산단체에서도 김준봉 한농연 회장과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한돈협회장, 조남조 사료협

회장, 이주호 방역본부장, 그리고 계란과 닭고기자조금 위원 등이 참석했다. 구구데이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열한 번째 맞는 축제를 계기로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과 닭고기를 더욱 많이 먹자”고 강조했다. 이날 청계광장에선 구구데이 11주년 기념 초대형 계란 조형물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7色 7味 닭고기 발효액 맛닭 요리 전시 및 시식, 초대형 닭 모형 야외 전시, 구구데이 홍보관 등이 운영됐으며, 닭고기와 계란 직거래 행사도 진행됐다. 또 방송인 클라라양이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닭과 계란을 이용한 마술공연, 구구데이송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구구데이 페스티벌은 전국 9개 농협지역 본부 주관으로 지역별 양계협회와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동시행사로 열렸다.

축산신문 신정훈 · 김수형 기자 2013. 09. 11



실무 위주의 목장 경영 전문지식 교육 실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3박4일)까지 전남 순천 소재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2013년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심화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심화과정은 지난 8월 중 진행된 기본과정을 토대로 보다 깊이 있는 목장경영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낙농인뿐만 아니라 후계낙농인들도 참가해 더욱 활기찬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2012년 목장경영 성적을 분석하고, 목장경영 장부작성법, 회계관리, 경영개선을 위한 사양관리 실무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특히 PC를 활용한 경영분석 실습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도 가졌는데, 번식장애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해결을 위한 특강이 마련되어, 교육생들은 전문수의사의 인솔 하에 직접 젖소 자궁세척 및 약제 주입 실습을 실시하는 한편, 젖소의 번식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배려와 경청을 통해 인간관계를 쌓아나가는 “인테크를 위한 소통 스킬”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교육생 일동은 FTA,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이번 교육은 IT와 축산을 융합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해 경영 성과를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더불어, 여성낙농인과 후계낙농인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세대간 교류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회 손정렬 회장은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

육에 참석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한 선진낙농인으로 성장하여 낙농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회원농가들의 목장경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보다 현장에 필요한 유익하고 알찬 강의로 전문 낙농경영인의 육성을 해나갈 예정이다.

양봉

대전시 · 양봉협회 ‘2015 세계양봉대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



대전시(시장 염홍철)와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는 9월 9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2015 대전 세계양봉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세계양봉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개설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시와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세계양봉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양봉산업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1897년 벨기에에서 처음 열렸다. 아시아에

서는 1985년 일본과 1993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염홍철 시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양봉산업은 전통적 영역에서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을 연계한 기능성 식품으로 급팽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2015년 세계양봉대회가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9월15~20일 엿새 동안 열리는 세계양봉대회에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양봉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전시는 세계양봉대회를 학술회의·전시회·경진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 국내외 12만 명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도 5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신문 조동권 기자 2013. 09. 13